



올초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소집돼 귀국한 이강인이 할머니 김영례씨와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영례씨 제공>

전남 강진 성전에 사는 이강인 외할머니 김영례씨 “강인아 결승에서 ‘콧’ 골 넣으라”

어머니 강성미씨, 강진 출신... 전국 동행하며 뒷바라지

U-20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견인한 '국민 영웅' 이강인(18·스페인 발렌시아)이 '전남의 아들'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처인마을에 살고 있는 이강인의 할머니 김영례(86)씨는 13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강인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있는 강진에 내려와 마을 회관에 머물면서 강진공설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었다”며 “그때도 주위 사람들이 ‘축구신동’이라고 말했다. 언젠가 꼭 성공할 것으로 믿었다”고 전했다.

김 할머니는 “강인이의 강한 체력과 승부욕은 전라도 기질을 타고난 때문인 것 같다. 어렸을 때도 워낙 불임성 좋고 아무래도 별명이 ‘강돌이’였다”며 “결승전에서도 지금까지 활약해 국민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고 말했다. 이강인은 워낙 건장한 체질을 타고나 한 번도 잔병치레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강인의 어머니 강성미(47)씨는 성전면 월평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이후 목포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에서 유치원 교사로 지내다 남편 이운성씨를 만났다.

이강인의 성장에는 강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다. 이강인은 모 방송국 프로그램 ‘날아라 새돌이’에서 처음 모습을 보인 후 ‘축구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다. 강씨는 이들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전국 경기장에 동행하면서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이강인과 팀원들이 초등학교 때 강진의 처인마을 회관에 머물 때도 손수 밥을 지어 먹일 정도였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강인이 축구하는 모습을 TV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곤 한다”며 “강인이 엄마가 전국 방방곡곡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딸이 고생해 뒷바라지

한 덕분에 강인이가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어 자꾸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강인이를 너무 좋아해 행복하다. 결승에서도 강인이가 ‘콧’ 골을 넣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부모의 노력 덕분에 이강인은 10살 때 스페인으로 건너가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합류했고 발렌시아에서 6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유소년팀을 거쳐 성인 B팀에서의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지난해 7월 바이아웃 8000만 유로(약 1070억원)에 계약기간 4년을 연장하는 A팀 계약서에 사인했다.

지난해 10월 1군 무대에 데뷔한 뒤 올해 1월 13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무대를 밟았다. 한국 역대 최연소(17세 327일) 유럽리그 데뷔, 발렌시아 역사상 최연소 리그 데뷔 외국인 선수로 기록됐다.

이강인은 U-20 월드컵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해 현재 1골 4도움을 기록하며 대회 MVP에게 주어지는 골든볼 후보 1순 위

에 올라 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러브콜도 쇄도하고 있다. 스페인 라디오방송 ‘카테나 세르’는 13일(한국시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반테가 이강인의 에이전트에게 영입에 대한 관심을 전달하면서 협상 채널을 만들었다”라며 “이강인은 레반테의 파코 로페즈 감독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레반테는 2015-2016 시즌 최하위로 밀려 2부리그로 강등됐다가 2017-2018 시즌 프리메라리기로 복귀했고, 지난 시즌 15위를 차지해 잔류에 성공했다.

지난 1월 발렌시아 1군 선수로 등록한 이강인은 2022년까지 계약돼 있다.

이 매체는 “에인트르본보다 아약스의 영입 의사가 더 강하다”며 “아약스는 젊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길러내는 철학이 있는 팀이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윤영기·김현영 기자 penfoot@

허블레아니호, 정밀수색했지만 실종자 못 찾아

헝가리 정부, 직접수색 韓에 허용... 실종자 4명

침몰한 지 13일 만에 인양된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선체 내부를 헝가리 당국이 정밀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추가로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헝가리 경찰은 12일(현지시간) 수색권을 동원해 허블레아니 선체 내부를 조사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국 정부합동수색대응팀이 밝혔다.

앞서 11일 인양된 유람선 허블레아니는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체셀섬으로 옮겨져 있다. 인양 직후 허블레아니에는 토사가 많이 남아 있고 발전기로부터 전류가 흐를 우려가 있어 선체 내 정밀한 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허블레아니 선체를 정밀 수색하던 실종자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일단 헝가리 경찰이 단독으로 실시한 수색에서는 실종자가 더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헝가리 정부는 13일 오전 9

시부터(한국시간 오후 4시) 한국 정부대응팀이 선체 내 수색을 해도 좋다고 결정했다.

앞서 헝가리 정부는 한국 정부대응팀의 선실 수색에 지난 11일 동의했다가, 이튿날 “법리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며 한국 측의 수색을 막았다. 헝가리 정부는 한국 정부대응팀이 수색에 동참하면 ‘가해자’ 쪽에서 증거보존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먼저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었다.

지난달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 관광객을 태우고 야경 투어에 나선 허블레아니는 뒤따르던 크루즈선 ‘바이킹 시간’에 들이받혀 침몰했다. 사고 직후 한국인 7명만 구조됐을 뿐, 한국인 2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헝가리인 선장과 선원도 사망했다.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연합뉴스

故 이희호 여사 오늘 현충원서 사회장 추모식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이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1시간여 동안 엄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3일 이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여사님의 생애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추모 열기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 취지에서 사회장 추모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7시 신촌 창천교회에서 장례예배를 드린 다음 운구 행렬이 동교동 사저를 거쳐 오전 9시 30분 국립현충원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추모식에서는 공동 장례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사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김상근 목사 등이 추모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도 낭독된다.

장례위원회는 이후 이 여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상주와 유족, 장례위원과 내빈이 차례로 화하·분향한 뒤 유족 대표가 인사하는 순서로 추모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여 안장식은 오전 10시 50분경 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기존 묘를 개장해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와 합장하는 방식으로 거행된다.

추모식은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되며, 추모식 이후 묘역에서 열리는 안장 예배에는 유족과 장례위원장만 참석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이번 장례 절차는 과거 어머니와 사회 활동을 같이하셨던 분들, 어머니와 뜻을 같이하신 많은 분이 함께 참여해 사회장으로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는 별도 기자회견에서 3300여명 규모의 장례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이상고문을, 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와 정치권 원로 등이 고문을 맡았다. 민주당·평화당·정의당 의원 전원, 한국당 원내대표단,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도 장례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상임이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를 빈소를 옮기고 국장으로 치렀으나, 여사님은 번거롭게 하기 싫다고 간소하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 제56차 총회가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리미다 플라자 광주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광주일보 김진수 기자 jeans@

한신협, 지역신문 위상 강화 방안 건의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 유관기관·단체에 지역신문 위상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 한신협 사무국 산하에 디지털위원회 신설,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배제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9개 지방신문사 발행인으로 구성된 한신협은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리미다플라자 광주고 호텔에서 열린 제56차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9개 신문사 대표들은 현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포

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등 언론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서울에 본사를 둔 언론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언론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 마련을 건의키로 한 것이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영욱 대전일보 사장(사진 왼쪽부터), 최광주 경남신문 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화양 경인일보 사장,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오영수 제주신보 회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임야

-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합
- ▶ 992㎡, 공유 지분 매매
- ▶ 기회 부동산 물건 아님
- ▶ 도농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 H.010-6834-7400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인접 땅지가 15만~20만원씩매매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뿔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00명)

▶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임야 매매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산 55, 55-1, 54번지 20,493㎡ 17억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 95, 95-3 51,475㎡ 23억

010-8443-5165
개인 직거래

http://gjbc.kr http://mygcds.com

제12회 영천한마당

광주 바이블칼리지 & 국제기독교를 계교 12주년 기념

영천 한마당 행사에 초청합니다.

- 일 시 | 2019년 6월 21일(금), 11:00~18:00
- 장 소 | 광주 바이블칼리지 & 국제기독교를
- 대 상 | 동문, 노회원, 지역주민 등 누구나
- 강 사 | 손영진(CCM 가수)

▶ 프로그램 ▶

- 1부 예배, 점심, 오픈마켓, 볼품찾기
- 2부 특별찬양, 간증, 음악연주 등 다양한 무대
- 3부 미니 체육대회

전남 담양군 무정면 종리도동길 42-34
문의: 061-381-0000/1365

학장 이원수 박사

광주바이블칼리지
광주국제기독교를
(기독교 중고등 대안학교)